



기획시리즈



임경빈

아카시아 연구회장

조경수목 산책 (XIV)

— 매화나무 —



▲ 만발하고 있는 홍매. 경북 불영사 경내. 1988. 4. 10.

1. 매화나무 일반

다 같은 나무를 두고 매화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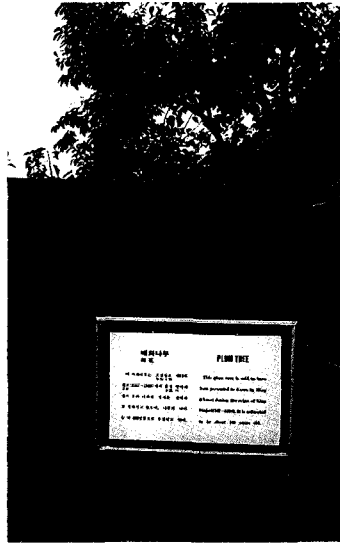
라 하면 꽃을 생각하는 것 같고
열매를 생각하면 매실나무라는
것이 더 어울리는 이름 같다. 매화

나무는 경취적인 이름이고 매실
나무는 소득증대를 연상하게 하
는 이름으로 그 뜻이라 할까 맛이

서로 상반되는 느낌이다. 이곳에서
서는 꽃을 감상하는데 비중을 두고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매
화나무(梅花, *Prunus mume* S. et
Z.)란 표현을 쓰기로 한다.

매화나무는 키가 낮은 나무로
사람의 손으로 증식이 되고 있고
어린 가지가 녹색이고 꽃받침의
조각은 둥글고 꽃자루가 거의 없
다.

매화나무 또는 매화는 중국에
서 건너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
나 가까이 박사는 제주도에 야생
종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그
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매화는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수종이므
로 우리나라 남쪽에 더 알맞고 개
성(開城)보다 더 북쪽으로 가면
재식이 어렵다고 한다. 필자는 경
북궁 안에서 노지에 자라고 있는
매화나무를 1985년에 본 일이 있
고 그 나무의 건강은 좋은 편이었
다. 옆에 안내판이 서 있었고 설
명하기를 『이 나무는 조선왕조 제
14대 선조(1567-1608) 때에 중국
명나라에서 우리 나라에 보내온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나무
의 나이는 약 400년쯤으로 추정되
고 있다』라 했다. 이 나무는 담장
으로 둘러싸인 모퉁이에 서 있어
서 겨울의 찬 바람은 피할 수 있
고 따뜻한 햇볕은 받을 수 있어서
추위는 큰 문제가 될 수 없었다고
짐작이 되었다. 당시 이 나무 심
을 장소를 잘 선택한 것으로 생각
된다.



▲ 400년생의 매화나무, 경복궁 경내.
1985. 9. 15.

일본에도 매화나무는 인기 있
는 꽃나무인데 역시 중국에서 건
너간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중국
에 있어서 양자강 하류지역이 매
화나무 재배지로 알려져 있고 북
경(北京) 지역에서는 노지생육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중국의 기록
에 보면 『술나무는 회강(淮江, 양
자강과 황하의 중간에 있는 큰
강)을 넘어서 북쪽으로 가면 탕자
나무로 된다. 강 남쪽에서는 매화
나무이지만 북쪽에서는 살구나무
로 된다.』고 했다.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사실은 아니지만 자랄 수
있는 영역을 표현한 것은 타당하
다. 매화와 살구는 무척 서로 닮
아 있다. 이시진(李時珍) 저의 본
초강목에 따르면 매화 매(梅)자의
옛적 글자는 매(棗, 매화나무 매)
였다. 이것은 나무열매(또는 꽃)
가 나무 위에 있는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매화나무는 살구나무에
닮았으나 구별이 되어야 할 것이
므로 살구나무 행(杏)자를 거꾸로
해서 𣎵로 한 것이다. 그런데 𣎵로
하지 않고 𣎵로 한 것은 알 수
없다. 그 뒤 사람들은 이 글자를
잘못 써서 甘木으로 했으며 이것
이 다시 변화해서 梅로 쓰게 된
것이라 한다. 기발한 착상으로 한
자를 만들어 내고 있다.

2 매화나무의 성품

화암수록(花菴隨錄)에 화목구
등품제(花木九等品第)가 있는데
그 중 일등은 높은 품치와 뛰어난
운치를 취한 것인데 매화, 국화,
연꽃, 그리고 대나무가 뽑히고 있
으며 봄에 피는 매화를 고우(古
友)라 하고 설달에 피는 매화를
기우(奇友)라 한다고 했다. 아울
러 소동파는 매화를 얼음 같은 맑
은 혼(魂)과 구슬처럼 깨끗한 골
격이라고 표현했다. 대나무와 매
화를 이아(二雅)라 하고 매화와
국화를 이우(二友)라 하며 매화,
대나무, 돌(石)을 삼청(三淸) 또
는 삼익우(三益友), 송죽매(松竹
梅)를 삼우(三友) 또는 세한삼우
(歲寒三友)로 매란국죽(梅蘭菊
竹)을 사군자(四君子)로 매화, 소
나무, 난초, 대나무를 사우(四友)
로 사우에 연꽃을 더해서 오우(五
友)로 하는 등 매화의 서상식물
(瑞祥植物)로서의 자리가 대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필자는 매화를 가까이에 두고

살아온 적이 없다. 그 만큼 삶의 질이 높았다고 할 수 없다. 옛 사람은 또 대나무도 생활 주변에 있어야 사람답게 된다했지만 커서 부터는 대나무마저도 나의 주변에는 없었다. 그래서 나 자신이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척 속(俗)된 삶을 영위해 왔다고 보아야 한다. 나는 매화를 상대한 적이 없지만 머리 속에 떠오르는 매화를 그려내서 그 성품을 찾아 볼 수 있다. 나는 어릴때 한학(漢學)을 하신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아버지의 매화나무의 시는 지금도 나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간직하고 있다. 이 시는 나의 저서에 이미 소개된 적이 있어서 이곳에서는 그 중복을 피하기로 한다. 이런 것이 바탕으로 되어 나는 매화의 생태와 생리 그리고 그 미성(美性)을 짐작할 수 있다.

매화는 돈 많은 사람, 높은 벼슬자리에 올라 세도를 부린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고 가난하고 올바른 길로 걸어온 이름 없는 선비에 어울리는 꽃이다. 벽들과 유리로 번쩍이는 고층 집에 산다던가 고층아파트에 사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고 시골의 목조주택에 조화되는 나무이다. 매화는 분재로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재가 휘황찬란한 형광등의 거실에서는 어울리지 못하고 될 수 있으면 촛불이나 달빛 아래가 어울린다. 유리창가보다는 창호지를 바른 나무창살의 문짝 옆이 어

울린다. 복잡한 도시 속 높은 건물 옆에 매화나무를 심는 사람은 없지만 심었다하면 그것은 매화나무의 변질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매화는 청빈(淸貧)의 한사(寒士)에 의해서 사랑받는 것이 옳다. 매화는 특히 돈에 욕심 많은 사람을 싫어한다. 그래서 매화를 옆에 두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척 부러운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지금 우리의 시대에 그 수가 극히 적다.

매화에 사귀(四貴, 네 가지 귀한 것)라는 것이 있다. 『희(稀)를 귀하게 여기고 번(繁)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늙음을 귀하게 여기고 젊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수척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비만(肥滿)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꽃봉오리를 귀하게 여기고 활짝 피어난 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시구(詩句)에서도 넉넉히 매화의 생리와 생태를 짐작할 수 있다. 떠들썩한 분위기, 화려한 상황보다는 약간은 고독

한 분위기가 좋다. 매화나무는 늙을수록 꺾질조각으로 목숨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 어울린다. 매화는 꽃과 줄기의 자태를 완상하게 된다. 어린 매화나무는 품격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 피골이 상접한 몰골의 모습이 조화되며 피부에 기름이 번지르 흘러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매화는 피기 전의 꽃봉오리의 미가 피어난 꽃을 능가한다. 우리는 그것을 더 완상하는 것이다. 매화의 분재가 만일 많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가진 사람이 많게 된다는 것은 지금의 세상에서는 좀 생각하기 어렵다. 갖 쓰고 자가용 운전하는 격이다. 지금의 세상이 무척 속(俗)스럽기 때문이다.

3. 매화와 시가(詩歌)

매화나무는 많은 시가의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몇 개를 들어 감상해 본다.

남송(南宋)때의 촌거(村居)의



▲백매의 형태(꽃대가 없고 꽃받침이 둥글다). 임업연구원 구내. 1994. 4. 7.

시가 있다.

數 舍 茅 茨 簇 水 涯
 수 사 모 자 족 수 애
 傍 簷 一 樹 早 梅 花
 방 침 일 수 조 매 화
 年 豐 便 覺 村 居 好
 연 풍 편 각 촌 거 호
 竹 裏 新 添 賣 酒 家
 죽 리 신 첨 매 주 가

새로 지붕을 덮은 몇몇 집
 시냇가에 서 있고
 처마 끝 매화나무
 빨리도 꽃을 달았다.
 세월이 좋아 문득 생각나는
 것은
 시골에 산다는 것이 마음
 편하다는 것
 새로운 술집에는 대나무
 숲이 있다.

이 시는 매화나무가 서 있을 만
 한 격에 맞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
 다. 현대적인 요란스러운 강통 음
 료수는 매화에는 어울리지 않고
 열건한 몇 잔의 술이 등장해야 한
 다.

[참고] 茅: 띠 모 茨: 새이영
 집 자 簇: 모일 족 涯: 물가 애
 簷: 처마 침 便: 곧 편, 즉 편

다음 당시(唐時)도 비슷한 상
 황이다.

野 水 晴 山 雪 後 時
 야 수 청 산 설 후 시



▲화사하게 피어난 총매. 임업연구원 구내. 1994. 4. 7.

獨 行 村 路 更 相 思
 독 행 촌 로 갱 상 사
 無 因 一 向 溪 橋 醉
 무 인 일 향 계 교 취
 處 處 寒 梅 映 酒 旗
 처 처 한 매 영 주 기

시냇물, 맑은 산, 눈(雪)을
 밟고
 홀로 가는 시골길에 너를
 생각노라
 혼자서는 취해 볼 수도 없는
 시냇가
 곳곳 주기가 찬 매화에
 어울린다.

한매는 한 겨울에 피어나는 매
 화이고 주기(酒旗)는 대나무 막대
 끝에 푸른 천을 달아 「술 있음」을
 알리는 깃발을 뜻한다. 매화에 술
 집이라 무척 서로 어울리는 상황
 이지만 혼자만으로서는 취해 보
 고자 하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는 것이다. 취해 보는 것도 상대
 가 있어야 좋다는 매화나무 아래

에서의 정취이다. 눈이 개인 뒤
 시골길을 가는 한 사람의 거동과
 사색이 멋있는 이곳 자연의 구상
 (具象)에 용융(熔融)되어 있음이
 흐뭇하다. 아마 이때의 매화는 눈
 을 이겨낸 절조의 백매(白梅)일
 것이다.

매화에 관련된 한 시에는 버드
 나무가 흔히 함께 하고 있다. 겨
 울에 또는 초봄에 피어나는 매화
 는 신록으로서 가장 먼저 봄을 전
 하는 버드나무와 생리적 동시성
 (同時性)이 있다. 버드나무는 활
 엽수종 중에서 맨 먼저 잎을 피우
 고 또 늦가을 가장 나중에 낙엽
 지는 나무이다. 그래서 매화와 버
 드나무의 늦겨울부터의 예민한
 온도반응은 시에 함께 잘 나타나
 므로써 생물기후(生物氣候)의 배
 경을 이룬 듯한 느낌이다.

구름과 놀이 바다에서 오르니
 새벽이 오고 있고(雲霞出海曙) 매
 화나무와 버드나무가 강을 건너
 서 봄을 알리고 있다(梅柳度江春)

는 시의 구절은 응혼(雄渾)에 차고 광막(廣漠)한 자연공간의 아름다움을 포괄시키고 있다. 이것은 두보의 조부다운 두심언(杜審言)의 시의 구절이다.

[참고] 曙 : 새벽 서 霞 : 놀 하 度 : 건너갈 도, 지나갈 도

그런가 하면 백거이(白居易)의 다음 시구(詩句)도 매화와 버드나무가 동반하고 있다.

매화나무의 흰 꽃잎은 살골짜기 물에 떠서 흐르고(白片落梅浮澗水) 버드나무는 성벽을 넘어 노랑 새 가지들 보이고 있다(黃梢新柳出城牆). 흰 꽃과 노랑 가지, 떨어지는 꽃(花)과 돌아나는 새잎(新), 개골물과 견고한 성벽 그리고 흐름(浮)과 뽑아남(出) 등 모조리 댓귀가 되어 좋다. 매화는 기후적으로 그 생리가 버드나무보다 앞서고 있음을 이 시에서 알 수 있다.

[참고] 梢 : 나뭇가지의 끝 초,

끝초 澗 : 산골물 간, 산골짜기 간 牆 : 담장, 경계 장

이 뿐만이 아니라 동쪽 언덕 서쪽 언덕의 버드나무는 잎 피어남이 다르고 매화나무 남쪽가지 북쪽가지는 꽃 피어남이 이미 서로 다르다 라는 시는 과학적 관찰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東岸西岸之柳 遲速不同
南枝北枝之梅 開落已異

이때도 매화와 버들을 함께 짝을 짓게 하고 있다. 다음의 시구도 그러하다.

柳條風未煖 유조풍미난
梅花雪猶寒 매화설유한

버들가지에 부는 바람은 아직 따뜻하지 못하는데 매화 꽃에 내린 눈은 아직 차다.

매화의 생리가 잘 나타나 있다. 역시 또 하나의 시구(詩句) 눈은 남쪽 처마 아래의 매화나무를 덮었고(雪被南軒梅) 바람은 북쪽 뜰에서 있는 버드나무를 재촉하고 있다(雪催北庭柳)는 것이 있다. 그러나 두보는 매화나무와 대나무를 대조시켜 시로 읊고 있다.

綠垂風折荀 녹수풍절순
紅綻雨肥梅 홍탄우비매

푸르게 드리운 것은 바람에 꺾인 죽순이요 붉게 터지고 있는 것은 비가 매화를 살지게 한 탓이다.

녹색과 붉은 색, 드리우고 터지고, 바람에 비, 꺾이고 살지고, 죽순과 매화, 그 대조가 모두 너무나도 뛰어난 듯 여겨진다.

매화를 소재로 한 시는 너무나도 많다. 다음 한 수를 들고 매화 시는 이곳에서 마감해 본다. 이 시는 당나라 왕인이 설달 그믐날 밤(除夜, 제야)에 지은 것이다.

今歲今宵盡 금세금소진
明年明日催 명년명일최
寒隨一夜去 한수일야거
春逐五更來 춘축오경래
氣色空中改 기색공중개
容顏暗裏回 용안암리회
風光人不覺 풍광인불각
已著後園梅 이저후원매

올 해는 오늘밤으로 다하고

▼청초한 백매. 임입연구원 구내. 1994. 4.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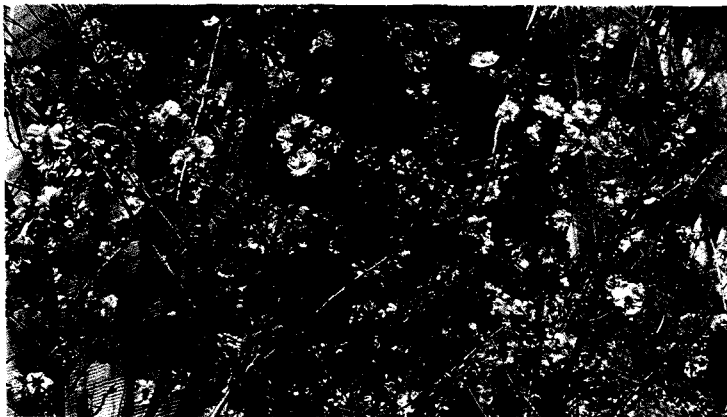


내일이 내년을 재촉하는데
추위는 하룻밤으로 가고
봄은 새벽을 쫓아오고 있다.
기운과 색깔은 변해가고
있는데
나의 용모는 어두워지고 있다.
사람이 풍광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뒤뜰의 매화는 꽃을
달았구나.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고 있는
찰라에 있어서 세월 빠름에 놀란
한 인간이 스스로의 초라함과 오
히려 새로워지고 있는 우주의 전
환을 대조시켜 보고 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새해가 되는 시간의
언덕에 서서 그래도 매화꽃의 자
연을 내다보면서 한줄기 희망 같
은 것이 아직 남아 있음을 엿보이
게 한다.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자연은 숨어서 오는 것처럼 그의
곁에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4. 지봉유설(芝峰類說)의 매화나루

▼홍매 겹꽃. 호주 시드니에서. 1981. 8.



지봉유설은 이수광(李睟光, 1563-1628) 지음으로서 1613년에 간행되었다. 벼슬이 이조판서의 자리에까지 이르렀고 조선후기의 실학에 대한 선구적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많은 저서를 남겼다. 지봉유설은 옛 책의 것, 들은 것, 고사(故事) 등을 분류해서 서술한 것인데 반드시 그 출처를 밝히고 있다. 그 안에는 무척 흥미 있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매화에 관련된 것을 뽑아 본다. 그 책 이외의 것도 이어 붙인 것이 있으며 필자의 견해가 덧붙여진 부분도 있다.

(1) 계랑(桂娘)의 애매(愛梅)

계랑은 전북 부안(扶安)의 천한 신분의 기생이었다. 그는 스스로의 호를 매창(梅窓)이라고 했다. 미모에 문장을 해서 명성이 넓게 퍼져 나갔다. 그래서 글썽나 하는 사람들이 계랑에 접근하고자 하는 이가 있었고 그 중 한 사람이 시를 지어서 계랑을 부추겼

다. 이에 계랑은 즉시 시를 만들어 대응을 했는데 그 시가 다음과 같다.

平生不學食東家
평생 불학식동가
只愛梅窓月影斜
지애매창월영사
詞人不識幽閑意
사인불식유한의
指點行雲枉自多
지점행운왕자다

평생토록 동쪽 집에서 밥먹고 서쪽 집에서 잠자는 일은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창 옆에 매화가 있고 그것에 달빛이 비친 것을 사랑할 뿐이었습니다. 글하는 사람들이 나의 그윽한 아취(雅趣)를 알지 못하고 부질없이 연정을 품어 보는 이가 많습니다.

[참고] 東家食 西家宿 동가식 서가숙. 일정한 주소가 없이 떠돌아다니며 지내는 일. 枉: 굽을 왕미칠 광(狂) 詞: 말 사 詞人: 시문을 짓는 사람 行雲: 흐르는 구름, 연정을 뜻함. 指點: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계랑의 멋진 화답을 받은 시객은 멋적은 마음으로 그곳을 떠났다고 한다. 매화를 좋아하는 계랑의 인품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계랑이 항상 거문고와 시를 좋아했으므로 그가 죽고 난 뒤에 거문고를 부장품으로



▲만발한 홍매와 골거리 나무, 내장사 구내, 1987. 3. 10.

해서 물어 주었다고 한다. 매화는 이처럼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 준다.

(2) 정몽주의 시와 일본의 매화

정몽주는 고려의 사신으로 일본으로 가서 그곳 각처에 매화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다음의 시를 남겼다.

梅窓春色早 매창춘색조
板屋雨聲多 판옥우성다

창문 옆에 핀 매화꽃은 봄
빠름을 알리고
판자집에 내리는 빗소리가
요란하다.

일본 풍물의 한 단편을 말해주는 것이다. 일본사람들은 집을 판자쪽으로 잘 짓는다. 그리고 지붕과 벽의 두께도 얇다. 이것은 지진에 대처한 안전도를 고려한 건축양식이라고 들었다. 이러한 집 구조는 빗줄기를 받아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다. 빗소리를 듣는다

는 것은 황홀한 음악보다 더 좋은 건데 그렇다면 일본인들의 집 구조는 그들의 비 많은 기후조건에 어울려 장단이 맞아 들어가는 맛을 느끼게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낙숫물(簷雨, 첨우) 소리를 차분한 음악소리로 듣는 빗소리 문화를 만들기도 했다. 민족에 따라 그 방향에 차이가 있으나 궁극적인 빗소리 감상의 취미는 하나로 되는 느낌이다. 일본사람들은 고로쇠 단풍나무 목재로 지붕을 흔히 덮는 모양으로 고로쇠 단풍나무를 판옥(板屋) 단풍나무로 말하고 일본 발음은 『이타야 가에데』이다. 일본에는 과거 매화를 가지지 못했고 그래서 고지끼(古事記, 고사기)라는 책에도 매화는 없었으며 뒤에 서토(西土)에서 들어왔다고 했다. 정몽주 선생의 이시로써 그때는 이미 일본에 매화가 많았음을 말해 준다.

백제의 왕인(王仁)은 일본으로

건너가 논어 열 권, 천자책 한 권을 전달한 사람인데 왕인은 매화 나무를 차화(此花)로 칭했다. 대 나무를 차군(此君)으로 말하는 것과 대를 이룬다.

(3) 양주목사(楊州牧使)와 매화

성(成) 아무개가 양주목사가 되어 매화(梅花)라는 이름의 기생을 두었는데 그 미모에 목사가 빠지고 매혹되어 아참(衙參)을 그만 두게 했다. 아참이란 아침에 관리들이 조정(衙, 관청 아)에 모이는(參, 참여할 참) 것을 말한다. 이때 최(崔) 아무개가 시를 지어 올렸는데 다음과 같다.

官橋雪霽曉寒多
관교설제효한다
小吏門前候早衙
소리문전후조아
莫怪使君常晏出
막괴사군상안출
醉開東閣賞梅花
취개동각상매화

(참고) 霽: 비와 눈이 갠 제
候: 문안할 후, 칠 후 晏: 늦을
안 使君: 지방의 외직(外職) 관리,
이곳에서는 양주목사.

관청으로 가는 다리에 눈이 개이니 새벽이 춥다. 하급관리(小吏)가 이른 아침에 관청으로 문안드리러 나오고 있다. 목사(사군)가 항상 늦게 나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취해서 동각을



▲ 눈과 매화, 전남 선암사. 1987. 3월 상순.

열고 매화를 완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매화는 아름답기 때문에 탈을 만들어 내고 있다.

다음과 같은 고사가 있다. 양(梁)나라 하손(何遜)이란 사람이 동각(동쪽의 작은 문)을 열고 글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매화를 구경시켰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을 동각상매화(東閣賞梅花)라 한다. 이 양나라 때의 고사를 양주목사의 기생 매화에 대한 탐닉에 이어 붙인 것이다.

(4) 도(道)를 찾는 여승과 매화 어느 여자 스님이 도를 깨닫는 시에 다음이 있다. 도는 먼 곳에 있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음을 뜻함이라. 다음 시가 있는데 이곳 필자는 이미 남송의 대익(戴益)의 작품으로 해서 소개한 바 있다. 그 표현이 너무나도 이곳 것과 통하고 있다. 지봉유설에 든 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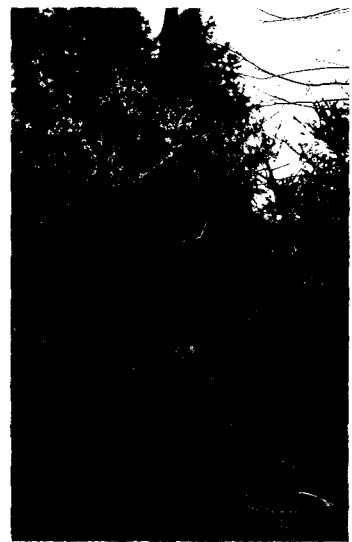
盡日尋春不見春
 慙慙日暮雪紛紛
 芒鞋踏遍蘄頭雲
 歸來笑撚梅花嗅
 春在枝頭已十分
 春在枝頭已十分
 春在枝頭已十分

[참고] 蘄頭: 농산의 언저리, 농산은 중국의 험서성과 감숙성의 경계에 있는 산 撚: 비틀 연 嗅: 냄새 맡을 후 芒鞋: 망혜, 짚신 미투리

『하루 종일 봄을 찾았으나 봄을 보지 못하고 짚신 발로 농산의 구름을 고루 밟고 다녔는데 돌아와 웃으면서 매화가지들 휘잡아 냄새를 맡으니 봄은 이미 가지 끝에 완연히 와 있어라.』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이 시는 흔히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다. 이처럼 매화는 초봄보다 더

일찍 봄을 알리는 것으로 뜰에 매화나무를 옮겨 심어놓았더니 봄을 빨리 얻을 수 있더라(庭院移梅早得春) 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떨어져 가는 매화는 세월의 무상 같은 것을 담기도 한다. 즉 새 대나무는 시골 아주머니 같아서 시절을 만나면 얇은 분칠을 해 보고(新竹似村姑 遇節略施薄粉) 떨어지는 매화는 늙은 기생 같아서 나뭇가지를 내려오면서도 오히려 남은 향기를 띠고 있다(落梅如老妓 下梢猶作帶餘香)는 시구가 있다. 세상에서 뛰어난 경구(警句)라고 칭찬한다고 했다. 자라나는 새 대나무 줄기의 표면에는 한때 분가루가 묻어있는 법인데 이것을 시골여자의 화장에 비유했고 매화꽃 향기는 떨어질 그때까지 간직하고 있음을 시구에 담아 문채(文彩)의 효과를 얻고자 한 것이다.



▲ 백매. 순천시 매곡동 1987. 3.

5. 우리나라의 매화

이곳 필자는 매화나무를 연구한 사람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의 매화나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답사한 것도 못되어 이곳에 우리나라의 매화라는 제목으로 글을 초한다는 것은 다소 망용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간 필자가 보아 온 매화나무 몇 그루에 대한 설명을 펼쳐보기로 한다.

1985년 초가을에 본 경북궁 내의 매화나무 이야기는 이 글 첫머리에서 다루었다. 나는 그 나무의 꽃을 본 적이 없다. 그 나무가 지금도 그대로 있는지도 궁금하다. 약 10년 전의 일인데 기회를 보아 한 번 더 살펴볼까 한다.

1981년 8월 호주 시드니에서 국제식물학회가 열렸는데 그때 논문발표차 참석한 일이 있다. 호주 기행으로 해서 그곳 자연 특히 나무와 숲 그리고 국립공원에 관한 것을 글로 실은 바 있다. 그때 나는 회의장 건물의 한 모퉁이에서 겹으로 된 홍매를 본 적이 있다. 그때가 8월인데 이곳 매화는 철도 없이 피어나는가 했다. 아름다운 한 그루의 매화였다. 호주의 철은 우리의 것과 반대라는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1987년 3월 상순 나는 전라북도 내장사를 찾은 일이 있다. 익산 원광대학교에서 교단에 서고 있을 때 집 안의 분위기가 갑갑하면 금산사와 내장사를 자주 찾았다.

그래서 내장사도 여러 번 찾았는데 초봄에 내장사 대응전 앞 넓은 뜰 한 모퉁이에서 만발하고 있는 홍매 몇 그루를 보았다. 사진에 담았더니 그 효과도 꽤 좋은 편이었다. 뿌리목 줄기둘레도 작지 않고 줄기가 갈라져서 아담한 수형을 만들고 지천으로 꽃을 피우고 있었다. 절간의 분위기에 어울리고 있었다. 이 매화나무 옆에 한 그루의 키 낮은 굴거리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매화나 굴거리나 찾는 사람이 물결을 이루는 가운데 땅은 굳어지고 사람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았다. 매화는 한적한 곳에 서서 고고한 품격을 보여야 하는데 이곳 매화는 이미 복잡한 시정에 나와 있는 느낌이었다.

절간의 매화나무로서는 전남 선암사의 것이 최고다. 선암사 구내 돌담을 따라 늙은 매화나무가 여러 그루 줄지어 서 있다. 1987년 3월에 나는 선암사를 찾았다. 내가 선암사를 찾을 수 있는 인연은 여러 번 있었다. 그곳에는 고

로쇠나무 숲이 있고 그 수액을 늦겨울철에 채집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러 가면 그곳의 매화나무는 꽃을 단다. 87년 봄에는 눈이 내리고 그 눈이 매화의 흰 꽃과 함께 해서 화백(花白)이나 설백(雪白)이나를 분간할 수 없었다. 아마 밤이 오면 월백(月白)마저 함께 해서 삼백(三白)의 조화가 고아(高雅)한 운치의 극을 연출해 낼 것으로 보였다. 어느 해엔가 한 번 선암사 절 방에서 하룻밤을 지낸 일이 있지만 그때는 매화의 시기가 아니어서 삼백의 묘경을 볼 수 없었다. 매화에 눈이 내려 앉은 상황은 그 표현을 시도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 공기도 싸늘하고 돌담도 싸늘하고 나무 줄기도 싸늘한 그 온도의 분위기가 매화의 운치를 살리고 있었다. 시절이 시절이라 매화꽃 찾는 이가 거의 없다는 상황도 나의 매화 완상을 값지게 해 주고 있었다. 선암사 주변의 우거진 숲 아래에는 많은 차나무가 한 겨울

▼백매 겹꽃, 전북 위봉산 가는 길, 1987. 4.



에도 푸름을 지니고 눈을 덮어쓰고 있어서 서로서로 좋은 이웃들이라고 느껴졌다. 선암사의 매화나무는 우리나라 매화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다. 역시 매화는 따뜻한 곳을 즐기고 그러한 곳에서 가치를 발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선암사에서 멀지 않은 순천시에 매곡동(梅谷洞)이란 곳이 있고 그곳에 오래된 백매와 홍매를 뜯어 가지는 순천대학교 교수 한 분이 있어서 찾은 일이 있다. 나무가 늙어 있었고 나의 생각으로는 1987년 봄 당시 나무에 대한 손질이 소홀한 느낌이 있었다. 그러나 오래된 나무에 백매의 점점(點點) 개화는 운치가 있었고 홍매 역시 아름다웠다. 매곡동이란 지명은 이곳에 지난날 매화나무가 많아서 얻어진 지명이 아닌가 했다.

일본말의 격언 중에 『벗나무 끊

어주는 바보, 매화나무 끊어주지 않는 바보』라는 것이 있다. 벗나무를 조경목적에 심어줄 때 그 가치를 끊어준다던가 수형을 다듬어 주는 일은 해서 안된다는 원칙을 말함이며 반대로 매화는 강한 전정을 해서 원줄기는 굵고 다시 굵어 용트림하는 천년의 고목을 상징시키고 그 등결에서 힘찬 가지가 나와 꽃을 다는 것이 볼 만하다.



▲녹색가지에 붙은 백매 전복 임업시험장 구내, 1989. 4. 6.

전주에서 가까운 위봉산(威鳳山)은 소나무 연구로 이름난 우에끼 교수의 연구현장이다. 위봉산은 일정시대에는 수원 농립전문학교의 연습림이었다. 그래서 우에끼 교수는 그곳에 자주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위봉산 소나무 연구를 하게 된 것으로 안다. 나는 그 분의 연구현장을 답사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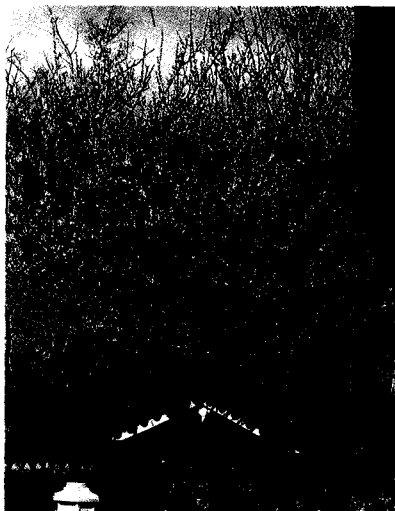
작정으로 1987년 4월에 산으로 올랐다. 가는 길 산골집 마당에서 접꽃으로 피어난 백매를 볼 수 있었다. 봄 햇볕을 화사하게 받으면서 질감을 다르게 하는 흰 빛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리 오래갈 것도 못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피어나는 백매의 최선이 놀랍기만 했다.

아름다운 홍매는 강릉 오죽헌 구내에서 볼 수 있다. 수형이 아담한데다 수천수만의 꽃을 단 황홀한 자태가 그곳에 있다. 홍매의 일품이라고 볼 수 있다. 진한 붉음이 아니고 오히려 분홍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봄날 오죽헌에 가서 한 번 볼만하다는 뜻이다.

오죽헌에서 울곡선생의 인생관을 찾아보고 아울러 이 홍매를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울곡선생의 인생관은 성동인우(性同隣羽) 하고 애지구학(愛止丘壑)이란 여덟 글자에 요약된다고 한다. 성품은 한가하게 거닐고 지나는 물고기와 고고한 학에 견주어 보고 나의 뜻은 깊은 산 푸른 숲 속에 머문다는 것이다. 티끌 없는 투명한 자연의 성품을 나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자연은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어 주건만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여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내는 슬기가 있어야 한다.

부여 규암면에 동매(冬梅)가 있었는데 지금은 고사했다. 한 겨울에 피는 매화로 유명했다. 가장 추운 날을 골라 꽃을 단다는 것은

▼만발한 홍매, 강릉 오죽헌 경내, 1988. 4. 25.





▲고사한 부어 동매. 1993. 6. 9.

좀 신기하다. 1993년 6월 9일에 그곳을 찾았다. 아담한 마을 길가에 죽은 채로 서 있었고 주변에 보호책이 만들어져 있었다. 말에 따르면 이 나무가 살아 있을 때 마을 아이들은 이 나무를 오르내리고 마치 운동기구처럼 상대했다고 한다. 만일 그랬다면 그것은 이미 나무 사랑이 아니고 나무의 목숨을 재촉한 것밖에 못된다. 아무렇거나 이 나무는 이미 죽고 말았다. 이 나무 옆에 안내판이 서 있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조선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 때 이백강(李白江) 선생은 두 번이나 청나라 심양으로 볼모로 잡혀간 일이 있었다. 인조 23년(1654) 3월에 귀국할 때 동매(冬梅)를 가져와 이곳에 심었다고 한다. 이 동매는 오엽단화(五葉單花, 홑꽃을 뜻함)로 엄동설한에 고고히 꽃이 피며 암영소향(暗影素香)의 선비정신을 나타내기도 하며 충의(忠義)와 절개를 상징

하는 군자의 기품을 뜻하기도 한다.」

이때 암영소향이란 말은 암향 부동월황혼(暗香浮動月黃昏) 즉 어슴푸레한 달밤에 그윽한 향기가 굽이치면서 날아오는 맑은 경지를 읊은 지난날의 시구를 되살려 본 느낌이 든다.

정다산 선생은 매화를 평한 바 있는데 점꽃은 홑꽃만 못하고 홍매는 백매만 못하다고 했다. 그래서 꽃잎이 큰 홑꽃의 백매가 상품이라고 평했다. 이것은 현대인의 눈에도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평이다.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원칙은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변함이 있을 수 없다.

6. 비매(飛梅)와 호문목(好文木)

일본에 스가와라(菅原道眞, 845-903)라는 한학자가 있었다. 그는 우대신(右大臣)이라는 높은 벼슬자리에까지 오른 일이 있지

만 참소를 받아 큐슈의 다자이후(太宰府)로 유배를 당했다. 그는 그들의 당시 서울이었던 교오또(京都)의 집뜰에 매화가 있었고 그 나무를 무척 사랑했다고 한다. 그는 유배지에서 고향의 매화나무를 생각하며 시(와까, 和歌)를 지었는데 우리말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봄바람 불면 향기를 풍겨라
나의 매화야

주인이 없다해서 봄을 잊을 수 있다.

이것은 유명한 시로써 일본 사람들은 누구나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 나도 다자이후를 찾아 그의 유배된 곳을 본 적이 있다. 비매란 고향의 매화가 주인을 그리워해서 날아와서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는 데 이야기의 줄거리를 만들고 있다. 과학적으로 따진다면 웃기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이러한 고사는 그대로 믿어두는 것이 인류의 건전한 정신문화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딱하고 웃어서는 덜 좋다. 일본 헤이안조(平安朝) 초기의 고사(故事)이다.

호문목의 명칭의 유래는 중국 진(晉) 나라 무제(武帝)에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는 3세기 후반에 왕으로 있었다. 기록으로는 그가 공부에 힘을 쓰면 매화가 꽃을 피우고 공부를 게을리하면 피지 않았다는데 있다. 이것도 그대로 믿어줄 만한 고사의 한 토막이다.